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3일 월요일 음 5월 29일 (6월)

기상정보



27~33℃
파고 1.0~3.5m
파고 1.5~3.5m
27~31℃
파고 1.5~3.5m
27~31℃

해돋이 05:34
해질 19:46

달돋이 03:38
달질 19:00

물때 만조 09:09
22:31

간조 04:11
15:48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오전 60% 강수 확률 60%

70% 제 주 60%

70% 성 산 60%

70% 고 산 60%

60% 서귀포 7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흐림 26/32℃

모레 ☁ 흐리고 비 25/32℃

월드뉴스

美 공습에 이란 반격... 다시 전운 감도는 중동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단초



미국-이란 무력충돌
연립뉴스

이란이 12일(현지시간)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대규모로 반격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미국의 계속된 이란 남부 공격에 대응해 이란 정규군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함께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공망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쿠웨이트군은 “현재 영공 내에서 적대적 공중 표적에 대응 중”이라고 확인했고 카타르 국방부도 “카타르를 겨냥한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공격받았고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선박들이 불법 항로로 해협을 통과하려 했으며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했다며 게슈섬, 아살루에, 부셰르 등 이란 남부의 군사·에너지 거점을 공습했고 이란군이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해 대규모로 반격했다.

연립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옥** 편집국장 **고 대 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히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귤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증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백록담



부 미 현
정치부장

제주 패싱 속 정치인의 ‘침묵’

한 투자 계획은 비록 구색 갖추기 용이라는 해당 지역의 비판은 있었지만 두루 언급은 됐다. 반면 제주 는 메가 프로젝트 투자 지역을 표시한 정부의 프레젠테이션 지도에서조차 아예 자취를 감췄다.

이보다 놀라운 것은 신임 도정과 제주 국회의원들의 무반응이다. 국가와 대기업이 함께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제주가 패싱 됐지만 아무런 입장이 없었던 것이다.

혹자는 반도체 산업과 제주는 무관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정치권을 옹호하는 애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곳이다. 왜 우리가 소외됐는지 묻고, 따지고, 소외받는 만큼 대체 보완 정책을 주장하고, 추후 있을 정부 정책에 제주를 챙겨 줄 것을 약속받지 않는다면 정치인

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주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 지사는 연일 제주의 민생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현재 최대 화두인 반도체 산업 투자와 관련해 제주의 역할론이나 소외론 어느 하나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을배 반적이다. 타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제주에 미칠 낙수효과라도 언급했으면 하긴만 이조차도 없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일 확정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육성전략에서도 제주는 사라졌다. 업연히 제주에 국가위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공식 발표된 정부 계획에 제주 관련 정책은 없었다. 걱정되는 것은 오는 9월 정부가 발표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제주의 바람대로 확정될 지다. 제주는 한국

마사회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 국마사회를 노리는 지역은 허다하다. 특히 마사회 유치 경쟁 지역인 전남광주의 경우 행정통합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더 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제주 이전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위 지사는 최근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의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는데, 중요 정책에서 제주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 등 제주의 소외론을 부각시키는 노력이라도 해야 제주 이전에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정부의 정책에 제주의 민생과 미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정된 예산과 정부 역량이 다른 지역에 더 쏠린다면, 남은 재정을 두고 지역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침묵이 ‘미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열린마당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지도를 하면서



양 성 운
체리 정예소득단지 회장

둘째, 교통질서 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경광봉으로 아이들을 막고 있음에도, 왜 멈춰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종종 보게 된다. 교통지도는 단순한 제지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교육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체험형 학습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주변 교통 관리다. 학교 근처에서 자녀를 태우거나 내려주는 학부모들의 태도에도 아쉬움이 있다. 횡단보도 위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는 모습은 타인의 안전과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지자체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승·하차 전용 구역’을 지정해 학부모 차량이 질서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준수 문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조차 제한속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다른 도로를 이용하길 권하고 싶다.

기후변화와 소비시장 변화, 농업 인력 부족 등 농업환경이 빠르게 달라지면서 제주 농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애월지역에서는 2019년 정예소득단지 조성 이후 현재 회원 농가 8호, 재배면적 2.2ha 규모로 체리를 재배하고 있다. 제주산 체리는 이른 시기 출하가 가능해 매년 초여름,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농업기술센터와 체리 정예소득단지 회원들은 체리의 안정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협업을 꾸준히 이어왔다.

착색 증진을 위한 피복제 처리 실증에서는 피복제를 활용한 경우 관행 재배에 비해 착색이 약 2~3배 향상되고, 당도도 1.5° Bx 내외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는 제주에서도 고품질 체리 생산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성과다. 또한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을 통해 농작업 안전장비를 마련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한 차압예방기를 도입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체리는 개화기 수정, 열과, 착색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배 난도가 높다. 품종 구성과 재배기술 개선을 위한 연구와 현장 적용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생산 기반을 더욱 다져 나간다면 제주 체리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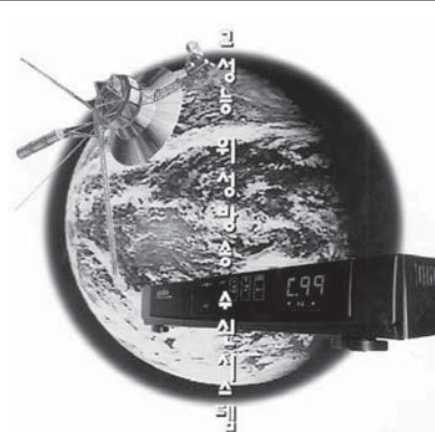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 (가립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